

제13회 중앙아시아.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A1092

한글 성명: 사이드안바르호자예바 마흐푸자

나를 설레게 하는 배려

시장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다. 시장 주변에 각주 문다. 장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근처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서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가다가 서점에 들렀다. 구경만 하다가 내 시선을 빼앗은 한 문장을 봤다. '배려가 얼마나 좋은 것일까?'였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동안 각주 보게 되는 것은 '책 나눔 운동,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 냉장고 운동' 등인데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이제 좀 커지고 이해심과 배려심도 생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운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직 20살이지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남자들이 있다. 자리를 양보해 줄 때마다 왠지 설렘을 느낀다. 아직 어린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클까? 이제

총 3 장 중 1 번째 페이지

성균관대학교

제13회 중앙아시아.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A1092

한글 성명: 사이드만바르조자예바 마프자

내 자리가 아닐까?

우즈벡 속담 중에서 '주변 반드시 받는 것이고 받으면 반드시 주어라'가 있다. 이 속담에 따라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든 내가 받고 있는 배려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느껴 봤던 설렘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다.

내가 말한 배려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사소하고 일반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배려를 받아 본 사람만 배려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앞에 말한 서스펜디드 쿼터 운동, 책나눔 운동을 보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다. 나에게 자리를 양보 해준 남자에게 어떤 아줌마가 "자리 양보해 주지 않고 그냥 니가 앉아라"라고 한 적이 있다. 화가 났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해서 자리에 앉

제13회 중앙아시아.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A1092

한글 성명: 사이드만바흐호자예바 마크푸자

지 많았었다.

반약에 사소하지만 감동적이고 마음에
설렘을 주는 배려가 없어진다면, 사람들
이 배려라는 단어만 들었고 주고 받는
것을 잊어진다면 사회가 얼마나 지저분
해질까? 없어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도 멀어지고 로봇처럼 될 것 같다. 자,
기백에 모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배려를 주고 받고 싶다. 사
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눈으로 하는 소통을 퍼
지게 해야 된다. 휴대폰 사용과 온라인
사회를 없애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앞에 말한 커피 운동,
책 나눔 운동들을 더 많이 열어야 한
다. 각자 본인부터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자주 받고 있는 배려의
설렘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